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 가정방문통합형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이용

간호사 필수 배치 - 건강관리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즉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모형은 '가정방문통합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두 가지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상 필수 이용해야 한다.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를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해야 한다.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통합재가서비스 각 제공기관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돼 있어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곳이 등록돼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사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필요"

### 간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간호사들의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했으며, 최종 720명이 응답했다.

간호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96.4% (매우 필요하다 71.0%+필요하다 25.4%)로 대부분이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7.4%가 가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선 1년 정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54.0%)와 빠른수록 좋다는 의견(40.6%)이 비수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료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74.4%였다. 직·간접 경험한 의료사고 유형은 낙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 투약오류, 주사오류, 욕창, 감염 등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 89.6%였다. 총 근무경력 21년 이상(31.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6~20년(18.3%), 6~10년(17.1%), 11~15년(16.7%), 3~5년(9.6%), 1~2년(4.6%), 1년 미만(1.8%)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95.1%, 남성 4.9%였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매진분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0...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만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0...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

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추진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도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 8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한 2차 사업지역 8곳에서도 연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지역은 노인 5곳(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광주 서구, 경남 김해시), 장애인 2곳(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 1곳(경기 화성시)이다. 2차 사업지역은 노인 8곳(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제주 서귀포시)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연구를 병행한다.

초기 질적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해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 논의 채널을 가동해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감정을 살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해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행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용갑 정책연구원은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범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0...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명(치매환자 43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

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곳에 치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대한간호협회

**플러스친구 등록방법**

카카오톡 ▶ 상단 검색창 '대한간호협회' 입력 ▶ '친구추가' 클릭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관)